

4일 Market Index			
코스피	8639.41	코스닥	1049.73
	(-162.08)		(+23.70)
금리	3.858	환율	1538.55
	(+0.085)		(+22.15)

metro® 경제

LG이노텍
반도체 기판공장 증설
"2030년 매출 3조"
04

엔비디아, 삼성·LG '로봇 동맹' 구체화

젠슨황, 오늘 김포공항 입국
최태원·구광모 등과 회동
7일 잠실야구장 시구 참여



선관위 앞 부정선거 시위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사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엔비디아가 차세대 성장축으로 꼽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직접 호명하면서 젠슨황 CEO 방한에서 양사와의 로봇 협력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로봇이 차세대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두 기업이 로봇 개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을 계기로 양사와의 로봇 협력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1일 대만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2026'에서 로봇용 인공지능(AI) 모델 '코스모스3'를 공개하며 "로보틱스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모스3는 로봇이 실제 제작에 앞서 가상 환경에서 대규모 학습과 검증은 거치도록 돕는 기반 모델이다.

이번 호명은 엔비디아의 사업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

호로 읽힌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HBM 중심의 AI 반도체에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피지컬 AI'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황 CEO는 같은 날 열린 대만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에서 한국에 어떤 투자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로보틱스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가 한국의 로보틱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엔비디아가 한국을 메모리 공급처를 넘어 로봇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직접 개발·생산하는 제조 주체에 가깝다. 지난해 말 콜옵션을 행사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로 늘리며 최대주주에 올랐고,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를 토대로 사내 미래로봇추진단을 중심으로 2028년 휴머노이드(사람형 로봇)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지분율은 59.94%까지 높아져 로봇 사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황 CE

O가 GTC 기조연설에서 로봇 협력 파트너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직접 언급한 것도 이러한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그룹 차원의 로봇 밸류체인이 강점이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는 가운데 '로봇의 근육'으로 불리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의 초도 양산도 추진 중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metro

서울 역전패에 與 충격... 정청래 연임 '적신호'

광역단체장 16개 중 12석 확보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등
국회의원 재보선 성적 아쉬워



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9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장악했음에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정청래 대표(사진)의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 3·6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전남 광주·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총 12곳이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서울·대구·경남·경북 등 4곳이다. 전국 14곳에서 이뤄진 국회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대다수를 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4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중 5개만 차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12개로 약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겼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도권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다소 아쉬운 국회의원 재보선 성적표도 받아 들었다. 재보선 지역 14곳 중 13곳이 원래 민주당 의석인데,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대구·달성·울

산 남갑·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을 지키지 못한 점은 뼈아픈 패배였다.

일단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선거 막판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전북만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호남에서 정 대표에 대한 비토가 늘었다는 뜻이 되므로, 다음 정당 대회에 나설 정 대표로서는 '호남 표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지사는 얻고, 서울시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결과도 나왔다.

또 '조작기소(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면서 서울과 영남 일부 여당 후보들의 대세 흐름에 지장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전선이 영남권에 형성되면서, 민주당이 삼패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에서 넉넉하게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보수 진영의 결집 명분을 제공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기존 13곳 중 2곳이 국민의힘 당세가 강했다. 치더라도,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경기 평택을은 범여권 내 경쟁 과열 관리에 실패해 국민의힘 의석을 한 석 더 늘렸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연성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 북갑도 한동훈 무소속 당선인이 치고 올라올 틈을 찼다는 비판이 있다. 청와대에서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재직 중인 하정우 후보를 차출했음에도, 당의 뒷받침과 전략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최태원, 젠슨황·TSMC 회장 '회동'

대만서 AI반도체 핵심인물 만나



지난 2일 SK하이닉스 전시 부스를 찾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젠슨 황 CEO. /SK하이닉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만 방문 기간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TSMC, 폭스콘 등의 핵심 인물들과 연쇄 회동하는 등 글로벌 산업 지형에 대응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공급과 함께 AI 칩 설계와 위탁생산,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연합전선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지난 3일(현지 시간) 대만에서 웨이저자 TSMC 회장과 회동했다. 두 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차세대 AI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양사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미래 AI 생태계 선도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24년 6월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자리로, 그동안 다져온 양사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HBM 개발을 비롯해 첨단 패키징 분야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서울시의회 지형 재편...더불어민주당 81석·국민의힘 37석
- ▲국민의힘 비상 의총 소집...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불참

-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유권자들 법적 대응 움직임
-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 방한...재계 총수들과 AI 회동

- ▲이만희 첫 소환 조사...신천지 강제가입 의혹 수사
- ▲마약감정 14만건 사상 최대...10대 합성대마 확산